

## 불쌍한 물고기들

이 인 서

벚꽃이 활짝 피어나 아름다운 봄을 선물하던 지난 해 4월 어느 일요일 아침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하천인 통복천에 산책로를 온가족이 함께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여동생이 “오빠, 저기 좀 봐.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있어.” 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알려 주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나는 여동생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고나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물고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빠가 “쫓쫓쫓... 붕어, 잉어, 버들치들이구나. 크기를 보니까 얼마 살지 못한 불쌍한 놈들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라고 말했고 엄마는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 그렇겠죠? 뭐...” 라고 대답했다. 아빠는 “그렇더라도 맑은 물에 사는 버들치가 죽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붕어와 잉어까지 같이 죽었다는 것은 통복천이 그만큼 더러워지고 오염이 심해졌다는 뜻인 거야. 쫓쫓쫓...” 이라고 했고 엄마는 “물고기들이 죽은 걸 보니까 산책을 할 기분이 나질 않아요. 냄새도 나고 말 이에요.”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가족들을 재촉했고 그 날 아침 나의 가족은 산책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10년 전만 해도 통복천의 물이 깨끗해서 동네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동네사람들이 물고기도 잡았다고 하던데 왜 저렇게 하천의 소중함을 모르고 오염을 시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속이상한 마음을 가족들에게 표현했고 나는 아빠에게 “아빠, 왜 통복천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았고 아빠는 “응, 그건 요즘 같은 봄에는 물이 부족해서 통복천과 같은 하천에 깊이가 낮아지면서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런 때에 쓰레기나 생활하수가 통복천에 많이 들어가면 오염이 심해지게 되고 오늘처럼 물고기들이 죽기도 하는 거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나는 하천이 오염되는 이유와 물고기들이 죽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날 이후 나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나서 생기는 생활하수와 쓰레기만 줄었다면 통복천의 물고기들이 불쌍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고 통복천이 서울의 양재천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 물을 아껴 쓰고 비누나 샴푸의 사용량도 그전보다 많이 줄여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복천의 물고기

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천이 갑자기 맑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나부터 맑고 깨끗한 통복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실천을 하게 되었다.

우리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통복천을 위해서 나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작은 실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실천들이 모인다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통복천을 만들 수 있고 통복천과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강들과 바다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어느 싱그러운 아침에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통복천의 산책로를 걷고 있는 나의 가족의 모습과 동네아이들이 어울려 마음껏 통복천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나의 얼굴에 저절로 흐뭇하고 행복한 미소가 생긴다. 나의 상상이 실제로도 꼭 이루어져 우리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